

우리 땅에 천국을

학교장 이

동

욱

나는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밖에는 별로 알지 못했다. 또 더 알고 싶어서 하지도 않았다. 성경에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지옥은 마귀가 지배하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르치고 있다.

요사히 나는 이러한 지식에 좀더 현실적인 것을 얻은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행인지 불행인지 모른다. 아마도 불행이라고 해야 좋을 것 같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어느 연례회에서 일하고 있는 부부가 서로 예금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금전관계를 따로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읽고 대단히 안된 생각이었지만 그 가정은 불원간 깨어지리라 생각했었다. 아닌게 아니라 그후 얼마 안가서 그들 사이는 파탄이 나고 이혼을 한 사회적인 스캔달을 보여 준 일이 있었다.

우리는 요사히 여기 저기서 많은 집들을 짓고 있는 것을 본다. 높은 집 낮은 집 여러가지 집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한가지 공통된 점을 찾아 낸다면 그것은 어느 집이고 철창문을 달고 담장에는 가시줄로 올라타리를 쳐서 올리고 있는 일들이다. 많은 돈을 써가면서 그런 설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은 당연한 일로들 알고 있다.

거리를 지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가운데 또 한가지 이상하면서도 거의 공통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길을 걸어가는데 젊은 이들이 배를 지었을 때면 의례히 서로를 마치

원수들이나 만난 것처럼 위 아래를 훑어 보며 어쩌다가 트집이 생기면 욕지거리 아니면 주먹이 오고 가게 마련이다.

왜들 이렇게 서로를 믿지 못하며 서로를 미워하며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문을 드려다 보고 중얼거리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세금고지서를 받아 들고 한마디씩 던지는 이들의 표정에서 심지어는 근대화 작업에 줄다름 치고 있는 여러가지 전설상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나 표정에서 어딘지 모르게 쓰디쓴 냉소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들을 엿볼 수 있을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어떤 신문에 실렸던 만화에서 어린 아이가 입학시험이 없어졌다고 기뻐하는 아버지를 쳐다 보며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솔직해서 병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 정말로 놀라움과 약간 과장한다면 슬픔을 금하지 못했다. 그 어린이에게서 아버지 아니 아버지를 대표로 하는 사회에 한푼이치의 신뢰성도 찾아 보려고 하지 않는 두려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열을 올리며 입거품을 일으키는 교사의 정열에 녹아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으로 대하는 학생들로 차있는 교실을 상상해 볼 때 몸서리가 남을 어쩌하랴.

구원 받지 못한 영들이 모일 지옥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안다. 그러나 여기에도 지옥은 분명히 있음을 본다. 이러한 두려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관심 속에 혹은 무관심하게 지옥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주위에 분명히 지옥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들이 살아야 할 이 땅 위에서 인간들이 인간을 믿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사회가 분명히 지옥이 아닌가. 말은 인간의 의사전달의 한가지 중요한 방법이다. 그 말을 믿지 않으려는 사회는 그 인간의 의지 전체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가, 지옥은 분명히 여기 도사리고 있다.

현대적인 아름다운 도로가 닦여지고 높고 높은 마천루들이 방방곡곡에 세워지려는 이 놀라운 진보와 비약의 시대에 구석 구석 불신의 싹들이 자라고 가지를 채고 열매를 맺어 간다

고 생각할 때 무서운 장래를 예상하면 몹서리가 난다. 소심한 탓일까?
나는 이러한 곳에서 우리의 일을 찾아보려고 한다. 우직한 일을. 이 지옥에 천국을 세우는 일을. 인간의 마음에서 아름다움을, 친구의 말에서 진실만을, 시종을 받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시종을 주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주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미움을 웃음으로 지워버려야겠다.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남녀노소 아는 이 모르는 이의 구별이 없이 인간의 성자와 그 능력을 믿고 그래서 도와 주고 도움받고 사는 사회가 이루어질 때 천국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 주위에 우선 신뢰와 존경과 협조의 정신이 따뜻하게 감도는 곳을 이루어 보고 싶다.

또 한참 잠고대를 했나 보다. 그러나 나는 이 잠고대같은 소리를 죽을 때까지 부르짖고 싶다. 특별히 어린 우리 인성의 딸들에게 더욱 크게 소리쳐 보고 싶다.

천국을 이루던 창회를 천국으로 보낸 날 저녁에

一九六八年十一月十三日